

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



제2356호 2024. 7. 7. **연중 제14주일**

제1독서 : 에제키엘서 2,2-5

제2독서 :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2,7ㄴ-10

복 음 : 마르코 복음서 6,1-6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chota_littlemm@naver.com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마르 6,4



Sr.WonGabriela

그림_ 가브리엘라 수녀님



✦ 화 답 송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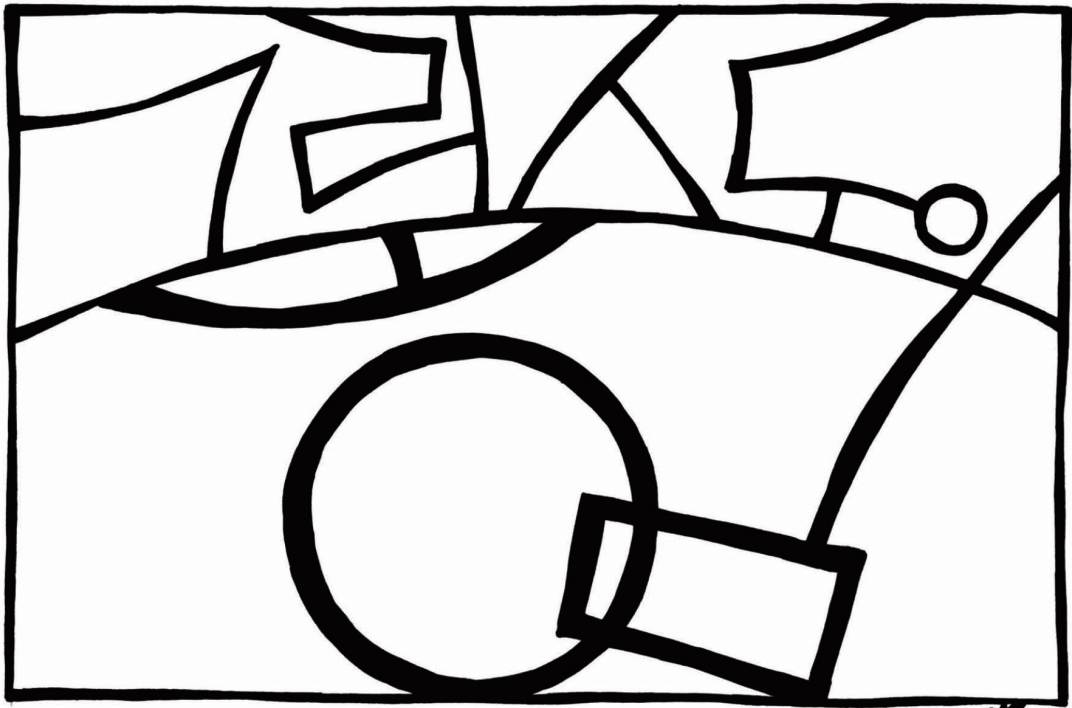
✦ 영성체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말씀그림



● 말씀그림에 숨어있는 한글을 찾아보고 예쁘게 색칠하세요.

2021년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 제2독서 <2코린 12,7ㄴ-10>

● 오늘의 독서를 읽고 빈 칸을 채워 보세요.



고향에 가신 예수님

작은마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고향이 서울일 수 있고, 다른 곳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나자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자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나자렛이 어떤 곳인지는 요한 복음 1장 46절에서 알 수 있어요. 나타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고 할 정도로 작은 시골이었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모 마리아님, 요셉 성인과 함께 나자렛에 사시며 자라셨어요. 그리고 서른 살부터 온 갈릴래아를 다니시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지요. 이렇게 공적인 활동을 하셨다고 해서, 이때를 예수님의 ‘공생활’이라고 하니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17지구 화곡2동 성당
이용일 펠릭스 신부님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고향 나자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이미 그분을 알고 있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무시했어요. 요셉 성인의 직업이 목수였고, 예수님께서도 어려서부터 공생활 전까지는 목수 일을 도우셨어요. 또 사람들은 나자렛에 계속 살고 있던 예수님의 가족들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와 기적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지난 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병을 낫게 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나요? 열두 해 동안 아팠던 여자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셨지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몇몇 병자를 고쳐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으셨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고,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른 분들을 무시하지 않고 서로 존경, 존중하기로 해요!



소금통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① 기적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해서
- ② 자신들은 예수님을 이미 잘 안다고 생각하고 무시해서



- ✧ 제 목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 수 상 자 홍민지 비비안나 (수서동 성당 6학년)



비비안나 어린이의 작품에는 하느님의 안에서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모두 함께 손잡고 즐겁게 노래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어린이들이 불러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랫소리로 온 세상이 알록달록 아름답게 차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수서동 성당' 5행시로 하느님을 당당히 따르겠다는 비비안나 어린이의 다짐까지! 예수님께서 작품 속 표정처럼 우리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바라봐 주실 것 같지요?